사주 × 나를 아는 법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사주로 알아보는 나답게 사는 법

THE SHAPE I WAS BORN IN



10
열 가지 자연 가운데
당신은 하나

나를 고치려 할수록 멀어지고, 나를 알수록 편해집니다

질문·나에게 하는 말·작은 실천 · 「아이고! 내 팔자야」 앱과 같은 만세력 계산 · 천문연 대조

블록뮤즈 서재 엮음

블록뮤즈

차례

들어가며 — 고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3

시작하기 전에 — 내 여덟 글자부터 찾으세요 7

1장 같은 날 태어나도 왜 다르게 살까? 9

2장 열 가지 자연, 당신은 그중 하나입니다 17

3장 당신을 키운 것은 태어난 계절입니다 54

4장 나는 무엇을 잘 쓰는 사람일까? 67

5장 다섯 기운 가운데 모자란 하나를 채우세요 80

6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나는 다른 얼굴이 됩니다 89

7장 혼자일 때 강할까, 함께일 때 강할까? 100

8장 여섯 조각으로 그리는 한 장의 자화상 112

9장 나답게 사는 일은 하루 한 번의 연습입니다 121

맺음말 —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26

「아이고! 내 팔자야」로 이어 보기 127

부록 1 한 장으로 보는 이름표 128

부록 2 세 사람의 셈 풀이 131

부록 3 낱말 풀이 133

부록 4 28일 질문 노트 135

부록 5 가족·친구 조각 비교표 137

부록 6 가까운 사람의 일간별로 건네는 마음 138

부록 7 자주 묻는 질문 139

부록 8 나의 기록장 141

참고 자료 143

◆ 들어가며 — 고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지칠까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이 책은 이 세 질문의 답을 당신이 태어난 여덟 글자에서 찾습니다.

나를 고치려 할수록 멀어지고, 나를 알수록 편해집니다.

먼저 약속 하나를 드립니다. 이 책에서 사주는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도구**입니다.

태어난 해·달·날·시의 여덟 글자는 당신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보여 줍니다. 그 재료로 무엇을 지을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정합니다.

이 책은 이런 분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 서른 무렵, 일을 바꿀지 버틸지 몇 달째 고민하는 분
- 마흔 무렵, 가족과 일 사이에서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분
- 남과 견주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분
- 「너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 칭찬인지 꾸중인지 헷갈렸던 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일은 당신을 가두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자로 나를 재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큰 나무에게 풀꽃처럼 살라고 하면 둘 다 지칩니다. 이 책이 하려는 일은 그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 이 책이 다른 사주 책과 다른 세 가지 | 약속

하나, 앞날을 맞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몇 살에 무엇이 온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럴 때 빛나기 쉽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둘,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글자마다 한 단어 이름을 붙였고, 장마다 내 칸만 찾아 읽는 표가 있습니다. 적어 둔 여덟 글자를 표에 대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셋,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장마다 스스로 묻는 질문, 나에게 하는 말,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섯 조각을 겹쳐 당신만의 자화상 한 장과 한 문장을 씁니다.

◆이 책을 쓰는 법 | 준비

준비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내 여덟 글자** — 바로 다음 쪽 「시작하기 전에」에서 찾습니다.
- **공책 한 권** — 질문에 답을 적을 곳입니다. 이 책의 빈칸을 써도 됩니다.
- **펜 하나** — 연필이면 고쳐 쓰기 좋습니다.
- **하루 15분** — 한 번에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장마다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	무엇을 하나
스스로 묻는 질문	읽은 내용을 내 삶에 대어 보는 질문입니다. 빈칸에 짧게 적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	소리 내어 읽는 한 문장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 꺼내 읽습니다.
작은 실천	이번 주 안에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책의 지도 | 차례

장	읽는 조각	묻는 질문
1장	여섯 조각 모으기	같은 날 태어나도 왜 다르게 살까?
2장	일간	나는 어떤 자연을 닮았을까?

장	읽는 조각	묻는 질문
3장	태어난 계절	나는 어떤 날씨에서 자랐을까?
4장	가장 많은 무리	나는 무엇을 잘 쓰는 사람일까?
5장	모자란 기운	무엇을 채우면 편해질까?
6장	일지	가까운 사람 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7장	기운의 세기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 언제 힘이 날까?
8장	한 장의 자화상	여섯 조각을 겹치면 나는 누구일까?
9장	나답게 사는 연습	내일부터 무엇을 해 볼까?
부록	이름표 · 세 사람의 셈 풀이 · 낱말 풀이 · 28일 질문 노트 · 비교표 · 일간별로 건네는 마음 · 자주 묻는 질문 · 기록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고, 내 조각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다만 1장과 8장은 꼭 읽어 주세요. 1장에서 조각을 모으고, 8장에서 조각을 한 장으로 겹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의 여덟 글자 계산은 다음 쪽에서 소개하는 사주 앱과 같은 만세력 계산으로 냈습니다. 표에 나오는 날짜·글자·숫자는 모두 같은 계산에서 나왔고, 예시 세 사람의 날 기둥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양력·음력 변환 결과와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13].

풀이는 명리학의 전통 해석을 쉬운 말로 옮기고, 「이 책의 제안」을 더한 것입니다. 미래를 단정하지 않으며, 건강·투자·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이 책을 위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림입니다.

이 장의 출처

[1] 사주 계산 기준: 해 기둥 = 입춘 시각, 달 기둥 = 절기 시각, 날·시 기둥 = 태어난 곳의 경도로 고친 시각, 밤 11시부터 다음 날. 이 계산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앱과 같은 만세력이며, 한국천문연구원 음력 자료 55,152일과 대조해 맞춘 계산입니다.

[3] 일간의 비유(「곧게 뻗는 큰 나무」 등)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앱의 풀이와 같은 말로 맞췄고, 한 단어 이름(별칭)은 이 책이 새로 지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내 여덟 글자부터 찾으세요

원리는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지금은 당신의 여덟 글자부터 찾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앱에 생일을 넣으면 무료 사주 화면 맨 위에 여덟 글자가 바로 나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앱으로 갑니다

주소: https://kokoronyang.app/go/ebook/eb022

1. 휴대폰 카메라로 위의 그림을 비춥니다.
2. 생일을 넣습니다. 양력인지 음력인지 함께 고릅니다.
3. 태어난 시각과 태어난 곳을 넣습니다. 시각을 모르면 비워 둡니다.
4. 맨 위에 나온 네 기둥, 여덟 글자를 아래 칸에 옮겨 적습니다.

내 여덟 글자

해 기둥(연주) — 위 글자 · 아래 글자 _____

달 기둥(월주) — 위 글자 · 아래 글자 _____

날 기둥(일주) — 위 글자 · 아래 글자 _____

시 기둥(시주) — 위 글자 · 아래 글자(모르면 비워 둡니다) _____

시각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 기둥 두 글자만 빠지고 여섯 글자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 책의 여섯 조각은 모두 시각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무리」·「모자란 기운」·「기운의 세기」는 여섯 글자로 셉니다. 나중에 시각을 알게 되면 그 셋만 다시 세어 보세요.

여덟 글자를 직접 읽는 법은 『한자 몰라도 보는 내 사주』에 따로 담았습니다. 이 책은 글자를 다 읽지 못해도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장마다 「내 칸 찾기」 표가 있어서, 적어 둔 글자로 내 칸만 찾으면 됩니다.

1 장

01

같은 날 태어나도 왜 다르게 살까?

사주는 당신을 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재료로 태어났는지 보여 주는 지도입니다. 이 책은 그 지도에서 여섯 조각을 꺼내 읽습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 ✓ 사주가 왜 「나를 아는 도구」인지 압니다
- ✓ 나를 이루는 여섯 조각이 무엇인지 압니다
- ✓ 내 여섯 조각을 한 장에 적습니다

장면 예시

같은 병원, 같은 날 (가상)

두 아이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한 시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서른 해가 지난 지금 한 사람은 작은 공방을 꾸리고, 한 사람은 큰 회사에서 팀을 이끕니다. 둘은 가끔 묻습니다. 「우리 사주는 거의 같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답은 간단합니다. 사주는 재료를 말할 뿐, 집을 대신 지어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나무로도 의자를 만들 수 있고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히는 말이 아닙니다 | 도구

사주(四柱)는 네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한 채의 집에 빗대어, 태어난 해·달·날·시를 그 집의 네 기둥으로 봅니다. 기둥마다 글자가 두 개씩이라 모두 여덟 글자, 그래서 팔자(八字)라고도 부릅니다[2].

옛날부터 사주는 길흉을 점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읽는 전통 방식에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여덟 글자에서 기운이 고루 갖춰졌는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보고, 치우친 쪽을 맞춰 가는 것을 좋은 길로 봅니다[2].

이 책은 이 원리를 「나를 아는 일」에 씁니다. 치우침을 알면 탓할 일이 줄어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로 바뀝니다. 그다음 질문이 비로소 「그럼 어떻게 살까」입니다.

근거

이 책이 사주를 읽는 방식

전통 명리는 날 기둥의 위 글자, 곧 일간을 「나」로 놓고 나머지 일곱 글자를 일간과의 관계로 읽습니다[2]. 이 책도 같습니다. 다만 앞날의 길흉을 맞히는 데 쓰지 않고, 타고난 모양을 이해하는 데에만 씁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 당신을 이루는 여섯 조각 | 지도

이 책은 여덟 글자에서 여섯 조각을 꺼냅니다. 조각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조각	여덟 글자의 어디	묻는 질문	읽는 장
① 일간	날 기둥의 위 글자	나는 어떤 자연을 닮았나	2장
② 태어난 계절	달 기둥의 아래 글자 (월지)	나는 어떤 날씨에서 자랐나	3장
③ 가장 많은 무리	일간을 뺀 나머지 글자	나는 무엇을 잘 쓰나	4장
④ 모자란 기운	여덟 글자의 다섯 기운 개수	무엇을 채우면 편해지나	5장
⑤ 일지	날 기둥의 아래 글자	가까운 사람 곁에서 나는 어떤가	6장
⑥ 기운의 세기	나를 돕는 기운의 비율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	7장



흙을 뚫고 올라온 새싹 하나 — 모든 것은 씨앗의 모양에서 시작합니다

조각 하나로 사람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큰 나무라도 봄에 자란 나무와 겨울에 자란 나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각을 하나씩 읽은 뒤, 8장에서 한 장의 자화상으로 겹칩니다.

여덟 글자는 몇 가지나 될까? | 조합

해 기둥 60가지, 달 기둥 12가지, 날 기둥 60가지, 시 기둥 12가지가 만나니, 가능한 여덟 글자 조합은 **518,400가지**입니다[3]. 그 가운데 다섯 기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조합은 **30.6%**뿐입니다[3].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가짓수로 보면 기운이 고르지 않은 쪽이 보통입니다. 빠진 기운이 있다고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 같은 일간끼리도 나머지 조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렇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주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다섯 가지 | 오해

사주를 「나를 아는 도구」로 쓰려면 먼저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오해 하나, 「사주가 같으면 삶도 같다」. 같은 해·달·날·시에 태어난 사람은 여덟 글자가 같습니다. 그래도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이 장의 첫 장면처럼, 같은 재료로도 의자와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 둘, 「띠만 알면 내 사주를 안다」. 띠는 해 기둥의 아래 글자 하나입니다. 여덟 글자 가운데 한 글자일 뿐이라, 같은 띠끼리도 나머지 일곱 글자는 모두 다릅니다. 이 책이 띠를 조각으로 쓰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해 셋, 「사주를 알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사주는 계절을 알려 줄 뿐입니다. 봄이라는 것을 알아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해 넷, 「사주는 바뀌지 않으니 나도 바뀌지 않는다」. 여덟 글자는 태어난 때로 정해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쓰는 방법은 자랍니다. 같은 칼도 스무 살에 쥐었을 때와 마흔 살에 쥐었을 때 쓰임이 다릅니다.

오해 다섯, 「사주는 증명된 통계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오랫동안 이어진 동양의 해석 체계입니다. 이 책은 그 해석을 나를 돌아보는 질문으로 바꿔 쓸 뿐, 과학으로 증명된 예측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 약속

첫째, 조각은 꼬리표가 아닙니다. 「나는 비견이라 고집이 세」처럼 조각을 핑계로 쓰지 마세요. 조각은 핑계가 아니라 설명서입니다.

둘째,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따로 없습니다. 다섯 기운이 다 있으면 고루 쓰기 좋고,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을 깊이 쓰기 좋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셋째, 성별과 나이로 묶지 않습니다. 옛 책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읽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책은 그 해석을 소개할 때 「옛 책에서는」이라고 밝히고, 지금의 삶에 맞게 고쳐 읽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읽습니다 | 예시

이 책은 세 사람을 예로 듭니다. 세 사람은 이 책을 위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태어난 때·곳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일간
태윤 (가상)	1983년 3월 27일 8시 서울	癸亥	乙卯	甲寅	戊辰	**甲**
소연 (가상)	1989년 11월 27일 6시 50분 서울	己巳	乙亥	辛卯	辛卯	**辛**
다은 (가상)	1999년 10월 22일 시각 모름 대구	己卯	甲戌	丁未	(모름)	**丁**

세 사람의 날 기둥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일진과 같습니다[1]. 1983년 3월 27일은 갑인(甲寅), 1989년 11월 27일은 신묘(辛卯), 1999년 10월 22일은 정미(丁未)입니다[1].

세 사람의 여섯 조각을 미리 펼쳐 두면 이렇습니다. 낱말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씩 풀립니다.

조각	태윤	소연	다은
① 일간	甲 곧게 뻗는 큰 나무 「앞장」	辛 빛나는 보석 「다듬음」	丁 어둠을 밝히는 촛불 「몰입」
② 태어난 계절	卯월 · 봄 · 제철	亥월 · 겨울 · 내어 줌	戌월 · 가을 · 거느림
③ 가장 많은 무리	나란히 3개 · 없는 무리 펼침·다짐	거둠 3개	펼침 3개 · 없는 무리 나란히·거둠·다짐
④ 모자란 기운	불·쇠(0개)	0개 없음 · 가장 적은 불·흙·물(1개)	쇠·물(0개)
⑤ 일지	寅 · 비견 자리 「동행」	卯 · 편재 자리 「활달」	未 · 식신 자리 「솜씨」

조각	태윤	소연	다은
⑥ 기운의 세기	강한 편「혼자서도」· 7점(글자 8개)	섬세한 편「함께라면」· 3점(글자 8개)	균형「그때그때」· 3점(글자 6개)

◆여섯 조각, 15분이면 찾습니다 | 순서

여덟 글자를 적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장을 다 읽기 전에 조각부터 모아 두면, 읽는 내내「내 이야기」로 읽힙니다.

순서	할 일	펼 곳	걸리는 시간
1	날 기둥의 위 글자로 내 일간 찾기	2장「한눈에」표	1분
2	달 기둥의 아래 글자로 내 계절 찾기	3장 월지표	1분
3	여덟 글자의 다섯 기운 세기	5장 세기 표	3분
4	일간을 뺀 글자의 무리 세기	4장 찾기표	5분
5	날 기둥 두 글자로 일지 자리 찾기	6장 60일주 표	1분
6	3번의 개수로 세기 점수 매기기	7장 점수표	3분

막히면 부록 2의「세 사람의 셈 풀이」를 펴 보세요. 세 사람이 같은 순서로 센 결과가 한 글자씩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해 볼 것 · 조심할 때 | 실천

바로 쓰는 것

이번 주 해 볼 것

- [ ] 「시작하기 전에」쪽에서 내 여덟 글자를 적기
- [ ] 아래 양식에 내 여섯 조각의 칸을 미리 만들어 두기
- [ ] 가장 궁금한 조각의 장부터 한 장 읽기

조심할 때

풀이를 읽고 마음이 작아진다면 그날은 책을 덮으세요. 사주는 당신을 줄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는 길을 막지 않고 길을 보여 줍니다.

내 여섯 조각 (장을 읽으며 채웁니다)

① 일간 — 나를 닮은 자연(2장) _____

② 태어난 계절 — 나를 키운 날씨(3장) _____

③ 가장 많은 무리 — 내가 잘 쓰는 힘(4장) _____

④ 모자란 기운 — 채우면 편해지는 것(5장) _____

⑤ 일지 — 가까운 사람 곁의 나(6장) _____

⑥ 기운의 세기 —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7장) _____

이 장의 출처

[1] 사주 계산 기준: 해 기둥 = 입춘 시각, 달 기둥 = 절기 시각, 날·시 기둥 = 태어난 곳의 경도로 고친 시각, 밤 11시부터 다음 날. 이 계산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앱과 같은 만세력이며, 한국천문연구원 음력 자료 55,152일과 대조해 맞춘 계산입니다.

[2] 십신 무리 세기와 기운의 세기는 일간을 뺀 천간과 지지의 대표 기운(본기)으로 셉니다. 기운의 세기 점수 기준은 위 계산과 같은 식입니다.

[3] 일간의 비유(「곧게 뻗는 큰 나무」 등)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앱의 풀이와 같은 말로 맞췄고, 한 단어 이름(별칭)은 이 책이 새로 지었습니다.